

삼위일체 대축일

기도서 312면 (B해).

제1독서 : 신명기 4, 32-34, 39-40

제2독서 : 로마 8, 14-17
복음 : 마태 28, 16-20

숨 정 이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마태오 28, 19-20).

강론

소리

삼위일체를 살자

회복되어야 할 것

전 대북 신부 / 조준동 주임

삼위일체 축일 때마다 고민스럽다. 하느님은 한분이시고 삼위가 계시다니 어떻게 설명할까?

흔히들 우리 인격 안에 지,정,의가 있으나 한 인격으로 표현된다는니, 전기는 힘과 빛과 열이 있어도 한 전기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를 애써 설명하려한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도 마음은 허전하고 내키지 않는다.

결론으로 삼위일체의 신비는 세상종말까지 영원한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며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하면 모르겠다는 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인 것이다.

다만 성서상에 나오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 생활과 연결시켜 보기로 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한10.30). “우리가 하나인것처럼 이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 11).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 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요한 15, 9).”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 하시며 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덧붙이신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알아듣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치하며 사랑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일치와 사랑의 대명사인 부부의 예를 들어보자. 하찮은 일로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가 급기야 신앙 문제까지 들고나와 아내가 하는말,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라고 하자, 남편도 “종소 당신만 천당에 가든지 만당에 가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따뜻한 곳에 갈테니.” 서로의 말대로 이제 아내가 천국에 갈 시간이 되어 천국문에 다 다르게 되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큰 글씨로 “가족동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입장불가”라고 써여있지 않은가.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인 부부가 따로 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 이야기다.

비록 남편과 아내라는 두 개체로 보이나 부부는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로 뭉어주고 일치하게 하는 매개체가 사랑이라는 말이다.

아버지 하느님, 아들하느님, 성령하느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니 한분의 하느님이시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우리의 지성으로 알아들으려고 애쓰기 보다는 차라리 삼위일체를 마음으로 느끼며 사랑으로서 삼위일체를 살아가도록 힘쓰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힘으로 빼앗으면 안된다는 것은 서너 살 먹은 어린 아이도 다 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 월요일 어느 석간신문은 사회면의 머리에 “권력에 재산 뺏겼다” 탄원 급증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계속, 그리고 철저히 썩은 냄새를 맡고 살아야 하는가?

어디까지나 「5공화국 권력 피해 주장 속출」에 대한 시비가 가려져 보아야만 잇따른 재산 반환 탄원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 번에 본 바와 같이 전두환 일가가 저지른 비리의 한 단면만 보아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다. 명색이 계약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라는 데서 고문 등 갖은 협박으로 인감도장을 빼앗아 남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임의로 처분을 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맘을 놓고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고도 우리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도덕성의 회복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치도덕의 회복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내세워 군사독재의 죄악을 어물쩍하게 넘기려는 정치세력이 큰소리를 치고 있는가 하면, 국민들은 이에 대해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제 새국회가 열리게 된다.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자. 정치도덕성의 회복을.



체험으로 깨닫는 삼위일체

성 아우구스티노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무려 다섯 시간이나 열심히 웅변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그러나 더 완전한 이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직접 여쭙어 보라"라고. 인간이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수억 광년의 거대한 우주 안에 한낱 먼지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 슬한 피조물 중의 하나로써 존재하는 인간이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진정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케 하시었으니 당신 손수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므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조금은 알게 하시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느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소위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느님 이시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느님, 그 아버지께로부터 낳으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들 하느님, 이 아버지와 아들로 부터 낳으시어 이 세상에 현존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느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나, 세분 모두가 다른 분이 아닌 한분으로 느껴지는 것

은 세분 모두가 한결같이 '사랑 자체' 라는 것이다. 진정 수억 피조물 중의 하나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당신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느님, 자신을 그토록 모욕하고 결국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 목숨까지 빼앗아간 그 인간들 이건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로 내어 주시는 아들 하느님, 부자들 가난하든 성한 이든 병든 이든,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모든 이를 찾아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느님, 세 분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사랑의 한 하느님'으로 나타나신다. 결국 셋이면서 하나라는 하느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써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이다. 그분의 모습을 닮아 그분 처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에게만 체험으로 이해 되어지는 진리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요한 15/17)'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사시며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신비를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알아 듣지 못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신다 (요한 14, 15 이하).



성서와 함께

4. 성서와 문화

성서의 메시지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가 입고 있는 옷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옷이 바로 문화이다.

문화란 자연의 질서와 구별되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일컫는다. 마을과 도시, 언어, 예술, 도구, 사회구조 등 인간의 노고와 창조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면 무엇이든 문화에 속한다. 세계 여러 지역과 민족 안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특정문화의 높낮이를 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각 문화 안에는 아름다운 면과 추한 면, 장점과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의 문화와 접하면서 자기네 문화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보전·발전시켜나갈 책임이 있다.

성서 저자들도 자기네 고유한 문화를 가졌다. 특히 그들의 문화양식, 제사예식, 믿음과 기도의 표현방법들은 우리에게 몹시 생소할 수 있다. 물론 그들 역시 우리처럼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 인간의 불성실과 참다운 인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동일한 실재들에 대한 체험들과, 그 체험의 표현양식들이 크게 다르므로써 그들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떼놓고 있다. 똑같은 실재에 대한 체험과 표현 방법이 다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간 개개인의 무

한정된 창조성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개개인이 속한 집단공동체가, 자연과 그의 다른 실재에 대해 다른 지역에 사는 공동체와 틀리게 체험하기 때문이다.

각 민족이 만들어낸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그 민족에 관련된 지리적 조건, 기후, 토지 등 물리적 조건들에 대한 지식이다. 성서의 탄생지인 고대근동의 기후와 지리적 배경은 히브리인들의 생활과 언어와 사고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예를 들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요한 4,14)이라는 표현은 먹을 물이 그런대로 풍부 한 우리에게 별 큰 감흥이 없었지만, 여름철 온 대지가 작열하는 태양으로 바짝 말라 초목과 가축과 인간이 먹을 물이 모자라 썰쩍매는 팔레스티나의 지리적 상황하에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고대근동의 물리적 조건들(기후와 지리)이 그들의 문화, 곧 언어와 우주관, 신화, 사회구조 등을 만들어냈고, 야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은 이 문화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문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체험을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창출해 낸 물리적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圖]

직 원 모 집

1. 모집인원 : 남 0명 여 0명
2. 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주산2급, 부기2급, 타자3급이상 기능소유자.
남 : 만 23~27세 (병역필) 여 : 만 18~20세
3. 제출서류 : 1) 자필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1통 4) 자격증 사본 각 1통
4. 서류접수 및 마감
1) 접수기간 : 1988. 5. 12 - 6. 11 2) 접수처 : 본조합 사무실

전화 : 3-8131~2

군산 신용협동조합

한 부
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광원(마르코)
김삼례(소피아)

전주시 고사동
(신혼예식장 관목)
☎ 6-1902

유치반·기초반·중고부
입시부 전문지도

황소영스튜디오

(피아노 전문 학원)

원장 : 황 소영 (아나다시아)
위치 : 이리시 창인동 신평교회 앞
☎ 51-0111

교 구 소 식

★ 김재덕 (아우구스띠노) 주교님께서 5월21일 오후에 병환으로 전북의대 부속병원 406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주교님의 건강회복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사회복지 월례 미사 변경 : 6월 13일 (둘째주) 오전 10시30분 장소- 사회복지회관
2. 성소자 모임 : 29일 (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대상-중·고·대·일반 남자
3. 초등부 교리교사 체육대회 : 6월6일 오전 9시30분 장소-해성고등학교 운동장 참가비- 시내 2,000원 시외-1,000원
4. 셀(Cell) 테크닉 연수회 : 일시-6월12일 오전 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대상-각 본당 중·고 셀 회원 목적-셀의 올바른 정립과 기능 및 목적 이해 회비-2,000원
5.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6월2일 (목) 10시~16시 장소-덕진 천주교회 강사-김태윤 신부, 이 아빌라 데레사.
6. 마니피캣 합창단원 모집 : 대상-성가에 관심있는 대학생 신자 및 예비신자.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가톨릭센터 교육관 1층에서 연습 전화-85·0041
7. 성모 승천 봉헌자 수녀회 성소자 모임 : 일시-매주 첫째주일 오후 2시부터 장소-광주직할 시 광산구 금호 4동 산111번지 전화-(062) 34-8766
8. 호국 연령을 위한 위령미사 : 6월6일 오전 11시 장소-군경묘지 추치-군중후원회
9. 해외사제 주소 :

김인찬 신부 ☎ 06131-52558 Rev. omnic Kang Koreanische Mission Berliner Str. 47d. 6500 Mainz West GERMANY	이종원 신부 ☎ 631-4103 Rev. Thomas Lee. La Colectividad Coreana Catholica Thorne 1261-1401 Buenos Aires ARGENTINA	김준호 신부 ☎ 01-472 3900 Rev. Paul Kim The Friary 58 St. Anthony's Road, Forest Gate, London E7 9QB ENGLAND
--	--	--

두려움

새끼 성취대회를 앞두고

아이의 어른의 거울

오월에 우리는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을 지냅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을 펼치면 벌어지는 십대의 폭력, 폐강도 사건들이 우리를 아연케 합니다. 어른들이 아는 십대란 꿈 많고 세상물정 몰라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십대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아이들로 변해갑니다. 청순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아들 딸들이 성폭행의 가해자요 피해자들입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옛날 중국의 맹자 어머니는 어린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세 번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모방하며 자라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자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과 학교의 여건은 또 어떠합니까? 사회는 이기고 차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사회이고, 가정과 학교는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 온갖 비인간적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채찍질 합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아이들은 진실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없으며,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사이는 사랑만으로는 통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삼위가 이룬 사랑의 일치를 지향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일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명을 받았읍니다. 성모의 달이며 가정의 달인 오월을 보내면서 이 사회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원합니다.

종합화장품 할인코너
중앙화장품 백화점

각종선물 도산매

중앙선물의 집

전주시 중앙성당 옆(구 한일식고)
☎ 4-0841 박원규 (안당)
결혼 선물세트 특별우대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오거리 나정형외과 옆
☎ 74-1123·3-6709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군신경외과의원

부설: 물리치료실

원장: 신일균 (아오스팅)
윤귀자 (로사리아)
병원: 84-7266 자 6-6417
관동로 전주백화점→다가교 중간

서범석한의원

원장 서범석 (풀베)
위치: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 72-2665·75-3533

요심이 (773)

100억원을 드러만든
대통령 별장 주변의 농가는
모두 철고 프랑스식 집을
2층스라브 집을
지으세요!

그이유는?
대통령이
구질구레한것을
보여서는
안되니까...

그리고 외양간은
짓지 마세요!
알았으요?!

왜요?
범새나는곳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쉽니까?

□ 1분 명상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시오.
(마태오 25,13)

명동피부과의원

현대미용학원

전주시 서노송동 631-3
(코아백화점 앞)

김금순

☎ 주 86-2211
야 74-1383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 반미사안내: 6월1일(수) 오후8시 6반-은운창(86-1522)
1. 본당 전신자 소풍및 레지오 옥외행사: 다음주일(5일) 본당 공식미사 어린이 미사 없음
2. 주일학교 첫영성체: 오늘 어린이미사중
3. 흥안나수녀님 피경(6월2일까지) 기도중 기억합니다.
4. 공소미사: 오늘 오후4시30분
5. 재속형제회·월례회의: 오늘 오후2시 치명자산
6. 모임: 청년회-30일(월) 오후7시 성심부녀회-3일(금) 어머니 미사후
 자모회-12일(일)로 연기함
7. 본당연수회: 6월1일 오후8시, 사목임원, 각계단체장
☐지난주봉헌금: 1,264,110원 ☐교무금: 872,5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4-1653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 축! 첫 영성체-6월5일 10시미사중
1. 전신자 일일소풍: 오늘 예비군 훈련장(현지에서 11시30분미사)
2. 성모의 밤 행사: 31일 저녁9시
3. 금암회: 31일 저녁6시30분(대건회관)
4. 사목회·금암회: 차주 공식미사후
5. 성지순례: 임시-6월6일 7시출발
6. 성시간: 6월2일 저녁미사후
7. 푸르실로 울뜨레아: 6월2일 저녁미사후
8. 유아세례: 6월3일 저녁미사중(대상자는 미리 사무실에 신청)
9. 금주전례: 해설-신동철 봉헌-윤석조 부부 복사-박희정 최장수 신자들의 기도-4반, 5반, 6반
10. 차주전례: 해설-문승욱 봉헌-우홍재 부부 복사-양재순, 장유진 신자들의 기도-7반, 8반, 9반
11. 미사안내: 능하신 동정녀Pr. 차주-상야모담Pr.
☐지난주봉헌금: 818,230원 ☐교무금: 812,0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1. 진복회: 단합 등반대회(부부동반)-오늘 10시까지 집결. 회비 10,000원
2. 성모의 밤 행사: 31일, 오후7시30분, 기도문 시 오늘까지 제출 바랍니다.
3. 성심부녀회 월례회: 6월1일 오전10시 임원개편: 회장-이정숙, 부회장-박정남, 총무-백명자 회계-김순자, 수고하시겠습니다.
4. 푸른군대 1일피정: 2일(목) 오전10시부터
5. 별자불성체: 3일 오후부터 미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6. 6월 성시간: 3일(금) 저녁7시30분
7. 북전주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6일 해성학교 운동장
8. 금주전례: 해설-정식의 복사·독서-사회 복지부와 주관 기도-덕진 4반 주관
9. 금주분당 청소: 천사의 모후Pr-4일 오후1시30분
☐지난주봉헌금: 747,010원 ☐교무금: 658,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명철
수녀원 5-4212

- * 축! 본당의 날 행사: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견진성사(6월5일): 오전10시30분(주교님 집전)
2. 생활교리: 공식미사후 교육관(강수녀님)
3. 예비자 교리: 일반·목, 후8시30분, 주부반-목, 오전10시30분, 중고생-토, 후6시
4. 수녀님 방문: 수-은총의 어머니, 금-바다의 별(오후2시)
5. 모임: 애령회-차주 공식미사후
6. 금주구역미사 모임: 31일 미사-화전, 1일 나눔찬치-원동, 3일모임-팔복3구역(한상갑, 조용기)
7. 청소: 셋별의 모후, 차주-바다의 별
8.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박영길 ②조병길
차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김병만 ②김순오
☐지난주봉헌금: 275,590원 ☐교무금: 244,000원
☐수요헌금: 16,760원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사목회장 박병철

-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1. 성모회 모임 6월 첫주일 미사후 있습니다.
2. 성모의 밤 행사: 5월31일 화요일 저녁미사후
3. 성당비품 신입에 많은 신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교무금 그동안 밀린금액을 납부바랍니다.
5. 교무금 신입을 못하신분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금주분당청소: 매개의 모후Pr 차주청소: 애덕의 모후Pr
금주미사안내: 애덕의 모후Pr 차주안내: 파티마의 모후Pr
금주전례: 해설-이철수 기도: 임상영, 조기순
차주전례: 해설-이귀례 기도-김남근, 김영이

☐지난주봉헌금: 302,010원 ☐교무금: 224,90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사목회장 소병울
수녀원 4-1142

-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1. 축! 견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2. 모임: 대건회, 요새회-공식미사후 소성당 청년회월례회-저녁미사후 강당
3. 성모상 축성식: 31일 저녁8시
4. 성모의 밤 봉헌예절: 꽃, 초, 화분 봉헌하세요.
5. 매주 첫주 목요일: 성시간및 성체장복(오후8시-9시) 둘째주 부터는 평소 성체조배 시간과 같음.
6. 금주분당 청소: 사랑하올 모친Pr 4일 오전11시
7. 금주전례: 해설-이기임 심상기 독서·기도-미산구역 차주전례: 해설-김광자 장두성 독서·기도-전당구역
☐지난주봉헌금: 305,920원 ☐교무금: 573,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1.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꾸리아, 요한회(공식미사후), 초등부 장미꽃다발 바치기 1차 결산식상(오후3시)
2. 성모의 밤: 31일 오후9시 꽃, 초 대신 현금봉헌
3. 2일(목): 성시간(오후7시) 4. 4일: 부녀회, 구역장회의
5. 소록도 방문: 6일, 회비-만원 사무실에 신청(선착순 45명)
6. 북전주 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6일 해성학교 운동장, 참가비-개인당 500원과 쌀1홑 오전8시부터 본당에 집결
7. 전신자 아요미사및 단합대회: 장소-무주군 안성 자연 학습원 참가비-한세대에 일만원씩, 사무실에 신청바람. 본당에 미사없음.
8. 금주분당청소: 화-평화의 모후 토-인자하신 모후
9. 미사안내: 사랑하올 모후 차원-순교자의 모후
10. 미사해설: 정주복 차원-강삼
11. 금주전례: 독서·기도-나병영, 조현자 봉헌·기도-박영근, 장정신
차주전례: 독서·기도-박해근, 강삼식의 봉헌·기도-윤영민, 오숙구
☐지난주봉헌금: 418,150원 ☐교무금: 606,5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1. 축 영세: 29일 오후2시 대부모님 1시30분까지 오세요.
2. 성모의 밤 행사: 31일 저녁8시 각 세대별로 성모님께 물질 예물을 봉헌
3. 성지순례: 6일 장소-미리내 회비-5,000원 오늘까지 신청
4. 미사시간을 엄수합니다.
5. 실습 수녀님 환분 오셨읍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6. 금주간 모임: 구역장님 목요일 어머니 미사후
7. 참석합니다: 세대에 한분씩 구역 모임에 필히 참석 합니다
8. 다음주 모임: 사목회 공식미사후
9. 축하합니다: 첫 영성체 어린이(58명) 협조해주신분께 감사
10.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11. 박사비나 수녀님 피경 6월6일부터 7월7일까지
☐지난주봉헌금: 527,790원